

평행한 경고 - 다섯 번째

유다 지파의 사자의 드러남: 위대한 논쟁의 마지막 장면 이해

Jeff Pippenger

2023-08-08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는, 계시록 10장에서 내려오는 천사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논평하면서, 힘센 천사로서의 그리스도가 "사탄과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그분이 수행하고 계신 역할"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육지에 두셨을 때 취하신 그 "자세"는 "온 땅에 대한 그분의 지고한 권능과 권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큰 음성으로" 외치셨을 때, 그분은 "사자가 포효할 때와 같이" "외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렇게 하신다.

구주께서는 요한 앞에 '유다 지파의 사자'와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의 상징으로 나타나신다. 요한계시록 5장 5, 6절. 이 상징들은 전능한 권능과 자기희생적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우신 유다의 사자께서, 순종하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실 것이다. 사도들의 행적, 589.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의 신적 때에 따라 성경 예언을 봉함하고 개봉하시는 그의 사역을 강조한다. 인류에 대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때가 가까웠다'고 할 그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밝혀 주는 특별한 성경 진리의 봉인이 풀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리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1-3.

'가까이 온' '때'가 실제 역사 속에 도래할 때,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선포된다. 그 특별한 메시지는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만 알아볼 수 있는, 정해진 때가 되어야만 드러나는 메시지다. 그때—바로 그때이며, 그 이전이 아니라—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될 것이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복은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가 열리는 것과 병행한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4.

"이리저리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을 의미한다)은 다니엘서의 "책"에 "봉해져" 있던 "말씀들"이 풀리는 "끝의 때"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합중국에서의 일요일 법 직후에 이리저리 왕래하는 또 다른 부류의 처녀들이 있다.

보라, 날들이 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이는 떡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갈증도 아니며, 오히려 여호와와 말씀 듣는 기근이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하며 여호와와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목마름으로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며, '단이며, 네 신이 살아 있다' 하고, '브엘세바의 길이 살아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11-14.

사마리아의 죄는 아합과 이세벨이 상징한 죄였으며, 아합은 미국을, 이세벨은 가톨릭 교회를 대표한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이세벨과 아합,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주일법을 상징한다. 그 대결에는 두 부류의 불경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곧 바알의 선지자들과 수풀의 제사장들이었다. 바알은 숭배되던 신들 가운데 하나였고, 수풀에서 숭배된 다른 신은 아스다롯이었다. 바알은 남신이었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었다. 둘을 함께 놓고 볼 때, 남신은 국가를, 여신은 교회를 대표한다.

단에 세워진 신은 사마리아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세운 것으로, 그는 베델과 단 모두에 금송아지를 세웠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단은 심판을 뜻하며, 둘을 합하면 일요일 준수의 강제 시행에 앞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상징한다. 그 두 금송아지는 아론의 금송아지로 상징되었다.

송아지는 짐승이고 금으로 만든 상은 우상이므로, 아론의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는 미국에서 주일법이 강제 시행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나타낸다. 여로보암의 경우, 두 도시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그 상징성에 대한 제2의 증인이 되며, 그 결합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으로 규정된다.

브엘세바의 법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타낸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21장으로, 이는 그의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의식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본문이다. 바울은 브엘세바가 처음 언급된 그 본문을 사용한다. 그는 같은 이야기 안에서 서로 다르게 대립하는 두 언약을 다루기 위해 그 역사를 활용한다. 바울은 여종의 아들(이스마엘)을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언약의 상징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언약의 상징으로 삼는 이삭과 그를 대조한다. 성경의 이 본문은 브엘세바가 처음 언급되는 곳이며, 훗날 바울은 성경 역사에서 이미 예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자신의 개인사 속 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 역사를 활용했다. 바울은 성경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다.

바울은 창세기 21장의 이 본문을 상반되는 두 언약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지만, 본문 자체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두 언약이 나오며, 그것들은 바울이 그 이야기에서 이끌어 낸 두 언약과는 다르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다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이스마엘을 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하셨다. 한 성경 본문에서 네 가지 언약이 언급되고, 이때가 성경에서 브엘세바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때문에 이 말이 매우 괴로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이와 여종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녀의 말을 따르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불릴 것이다. 또한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도 네 자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아이도 넘겨 주어 그녀를 떠나보냈다. 그녀는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창세기 21:10-14.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징한다. 바로 그 장에서 아브라함은 또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내가 네게 베푼 인애대로 너도 나에게, 그리고 네가 나그네로 머물렀던 이 땅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빼앗아 간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는 오늘에서야 이 일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양 떼에서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네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암양 새끼 일곱 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가 말하였다. 이 일곱 마리 암양 새끼를 내 손에서 받아라.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브엘세바라 불렀으니, 거기에서 그들이 서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 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장관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창세기 21:22-34.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다. 성경에는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하는 여러 언약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Beer"는 "우물"을 뜻하고 "sheba"는 "일곱"을 뜻한다. "sheba"는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윌리엄 밀러는 그것이 2,520년의 예언을 나타낸다고 정확히 이해했다. 그것은 그가 발견한 최초의 "시간 예언"이었고, 1863년에 처음으로 제쳐 놓인 기초적 진리였다. "sheba"라는 단어가 네 절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본문에서, "일곱 번"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징벌은 "내 언약의 다툼"이라고 불린다.

그때에는 나도 너희를 거슬러 행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일곱 배 더 벌하리라.
또 내 언약을 위하여 보복하는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어,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라.
레위기 26:24, 25.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다툼"을 나타내며 "일곱 번"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 곧 Beersheba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sheba"는 다니엘서에서도 두 번 번역되는데, 한 번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로, 또 한 번은 "저주"로 번역된다. "맹세"와 "저주"는 모두 "sheba"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이는 그것이 단지 "일곱"을 뜻할 뿐 아니라, 깨뜨릴 경우 "저주"를 낳는 언약 또는 "맹세"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떠나 주의 음성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죄를 지었음이라. 다니엘 9:11

"sheba" 또는 "일곱"이라는 단어는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드러진 일곱 마리의 어린양을 가리키던 말로, 언약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곧 그의 맹세는 순종하는 자는 살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고 규정한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내는 언약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아모스 8장의 '아름다운 처녀들'(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들'이자 다니엘 12장의 '악인들')이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한다"고 할 때, 그들은 아합(유엔)과 음행하고 짐승의 우상(미국)을 다스리는 이세벨(교황권)의 표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바로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오 단이여, 너의 신은 살아 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두 증인(아론과 여로보암)이 지목한 송아지의 금 형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다. 금송아지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인 짐승의 형상을 상징한다.

그 같은 처녀들이 브엘세바의 'manner'가 '살아 있다'고 주장할 때, 그 'manner'라는 단어는 'way'를 의미한다. 이것은 예레미야 6:16에서 '옛 길'의 '길들'을 지칭하는 데 쓰인 바로 그 동일한 단어다. 그 처녀들은 짐승의 형상에 절하고 그의 권위의 표를 받아들였음에도 자신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동'과 '북'과 '바다에서 바다까지'로 상징되는 기별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친 듯이 이리저리 오가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온 소식이 그를 괴롭게 하리니, 그러므로 그는 크게 분노하여 나가 많은 자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없애려 하리라. 또 그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그의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요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1:44, 45.

그 처녀들은 이 앞의 두 절의 기별을 찾고 있다. 1989년, 다니엘 11장 40절에 묘사된 대로 옛 소련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교황권과 미국에 의해 쓸려 나갔을 때, 종말의 때에 봉인이 풀린 최후의 경고 기별은 교황권의 최후의 흥기와 몰락을 밝혀 준다. 이 두 절에서 동방과 북방으로 상징된 기별이 북방 왕(교황)을 격노하게 하고 최후의 박해가 시작되며, 45절에서 교황권이 "tabernacles"를 세울 때 끝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천막"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고(천막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궁전"의 "장막"이며, 이는 국가를 상징한다. 그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상징하는 그 장막, 곧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이라 부른 그것을 세우는 곳은 "바다들" 사이(복수)이다. 아름다운 처녀들은 다니엘 11장 44절과 45절에 나타난 최후의 경고 기별을 찾고 있으며,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미가엘이 일어서고 은혜의 문이 닫힌다. 그리고 그때 아모스 8장 14절은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엎드려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정결한 처녀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바로 그때 자신들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라고 주장할 때, 요한은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아닌 자들로 묘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다.

보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들, 곧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와서 네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9

그들은 교황권의 표를 받아들였고, 따라서 교황의 품성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자이기도 한 교황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림교인이라고, 혹은 재림교회의 성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교황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재림교인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왕래하는 자들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며, 대신 "처녀들"로 지칭된다. 그 본문에서 방황하고 굶주리며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바로 그 본문에서 그 말씀 자체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의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 혹은 "아름다운 처녀들"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지식의 증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마태복음이 가르치듯 혼인 잔치에 따라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기근"은 유예 기간의 종결이다. 그 구절들에서 빵(하나님의 말씀)과 물(성령)을 구하는 아모스의 "처녀들"은 "깨닫지" 못하는 다니엘의 "악인들"이다. 그들은 성령을 구하는 마태복음의 어리석은 처녀들이며, 이 세 증언을 종합하면 혼인을 준비할 기회가 이미 지나갔고 혼인 잔치에 갈 예복이 없음을 깨닫는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난다. 이는 그들이 지금 봉인이 풀리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특별한 메시지가 봉인에서 풀리는 때부터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가 구원을 위한 마지막 부르심의 때이다. 그때를 준비 없이 맞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듣게 될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세상은 악과 기만과 미혹 속에서, 바로 사망의 그늘 속에 누워—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영혼의 산고를 느끼는 이가 누구인가?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은 그 신호가 주어질 미래로 옮겨졌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그를 맞으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 등불을 채울 기름을 얻는 일을 미루다가, 너무 늦게서야 기름으로 상징되는 품성은 다른 이에게 옮겨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2월 11일.

열 처녀의 비유로 대표되는 예언적 맥락에서는 기름을 품성을 상징하는 데 사용하지만, "금빛 기름"과 "거룩한 기름"은 또한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온 땅의 주님 곁에 서 있는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한때 사탄에게 주어졌던 덮는 그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분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해 주님은 땅의 거민들과 끊임없이 교통하신다. 금 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불에 공급을 계속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며, 그 등불이 깜빡거리거나 꺼지지 않게 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통해 하늘에서 이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욕되심을 당하신다. 이처럼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려는 금빛 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부름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기름을 얻을 힘이 자기들 안에 없고,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널리 부어질 것이다. 금으로 된 관들을 통해 그 금빛 기름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 Review and Herald, 1897년 7월 20일.

아모스서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들은,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봉인이 풀리는 계시록의 특별한 기별을 "이해"할 책임을 거부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한 부류를 지목하는 증언에 힘을 보탠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위태로운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구하는 일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어리석은 처녀들의 본을 따라, 그때 설 수 있는 품성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손님들이 불러 들어와 살피심을 받는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려 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곧 당신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할 혼인 예복을 입을 때이다.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구걸하지만, 그들의 요청으로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 이는 위기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 일로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상징한다. 마치 그들이 이웃에게 가서 '당신의 품성을 내게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것이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꺼져 가는 등불에 자기들의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품성은 양도될 수 없다. 그것은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 동안 의로운 품성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혹독한 경험을 통과하고 위대한 스승에게서 교훈을 배우며, 시험 가운데 인내를 드러내고 옮길 수 없는 산들도 옮길 만큼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형성된 그 품성을,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길은 마련하지 않으셨다. 사랑의 향기를 전해 주는 것, 곧 다른 이에게 온유와 사려 깊음과 인내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인간의 마음이 다른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부어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유혹을 통해 성품의 모든 면모가 드러나게 될 날이 오고 있으며, 그 날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 원칙에 끝까지 충실하며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은, 그들의 유예 기간의 앞선 시간들 동안 시험과 시련 아래서 참됨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성품을 빚어 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가꾸어, 그의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다른 이에게 마음의 헌신과 고상한 정신적 특질을 주거나, 도덕적 능력으로 그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본을 보여 줌으로써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의가 없이는 심판에서 설 수 없는 바로 그 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성품을 세우는 이 중대한 문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자신의 성품을 신성한 모범을 따라 빚어 가야 한다. The Youth's Instructor, 1896년 1월 16일자.